

朱丹溪 相火論의 君火 相火의 개념에 대한 고찰

¹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容範¹ *

Study on the Concept of Monarch-fire(君火) and Ministerial-fire(相火) in Zhu Dan-Xi(朱丹溪)'s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Lee yong-Bum¹ *

¹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 In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of Zhu Dan-Xi(朱丹溪), the meanings of monarch-fire(君火) and ministerial-fire(相火) described in papers published nowadays are not the sa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build a clear concept.

Methods :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heaven(天)'-'human(人)' and 'name(名)'-'position(位)', the core concept of the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of Zhu Dan-Xi(朱丹溪), I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ven(天)' and 'human(人)' in Neo-Confucianism(性理學) of Song(宋) Dynasty and reviewed the notes of Wang Bing(王冰) which were quoted by Zhu Dan-Xi(朱丹溪) to set the concept of monarch-fire(君火) and ministerial-fire(相火). I studied relevant texts.

Results : In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of Zhu Dan-Xi(朱丹溪), monarch-fire(君火) is perceived as being from greed(人欲) that can cause hyperactivity(妄動) of ministerial-fire(相火), whereas ministerial-fire(相火) is perceived as being able to control monarch-fire(君火) by following the orders from heaven. This point of view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ich recognized monarch-fire(君火) as the owner and ministerial-fire(相火) as the servant.

Conclusions : Zhu Dan-Xi(朱丹溪) received the ideological impact of Neo-Confucianism, and accepted the notes of Wang Bing, recognized monarch-fire(君火) as 'name(名)' and ministerial-fire(相火) as 'position(位)', so he voiced the ministerial-fire theory(相火論) that perceived monarch-fire(君火) as fire(火) of the five processes(五行) of human body that came from greed, ministerial-fire(相火) as being in a position to hear the order from the 'heaven(天)' to control monarch-fire(君火).

But the concept of ministerial-fire(相火) which he set connoted a confusing meaning of 'nature (性)' and 'way(道)' of Neo-Confucianism. In the later process to solve the problem, life-gate theory(命門學說) was raised, and many researchers had tried to remove the meaning of hyperactivity from the ministerial-fire(相火).

Key Words : ministerial-fire(相火), heaven(天), human(人), name(名), position(位)

I. 서 론

朱丹溪는 「相火論」에서 “天主生物，故恒於動，人有此生，亦恒於動，其所以恒於動，皆相火之爲也。”，“天非此火，不能生物，人非此火，不能有生”¹⁾이라 하여, 相火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출간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君火와 相火의 관계에 있어서, 君火를 더 강조하고 있다.

「朱丹溪 相火論의 성리학적 연구」와 「理學太極動靜之理與丹溪醫學」에서는 體用的 관점에서 君火를 體로, 相火를 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²⁾³⁾, 「淺談朱丹溪相火論」에서는 相火가 君火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⁴⁾, 「從朱丹溪君火與相火的關係論中

醫心理調節機制」에서는 君火가 不明하여 相火를 억제하지 못하면 相火가 妄動한다고 하여⁵⁾, 모두 君火를 相火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黃帝內經』 「天元紀大論」에서 “君火以明，相火以位”⁶⁾라 한 후 형성된, 君火를 명령을 내리는 군주로, 相火를 명령을 받아 실제 정치를 행하는 신하로 보는 틀 속에서, 朱丹溪의 君火와 相火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元代 儒醫 朱丹溪 醫論에 나타난 理學思想淵源考」에서는 위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君火가 명령을 내리고 相火가 명령을 받는 관계로 보면서도⁷⁾, 朱丹溪가 君火를 人火로 相火를 天火로 규정한 점에 주목하여, 君火를 하늘의 火로 설정하고, 그 활동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人火이며, 相火를 인간의 火로 설정하고, 그 기원이 하늘이기 때문에 天火라 하여⁸⁾, 복잡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朱丹溪가 설정

* Corresponding Author : Lee Yong-Bum. 660, Woosan-dong, Wonju, Gangwon-Do.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el : +82-33-730-0668. E-mail : ybl@sangji.ac.kr.
이용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 대학 원전외사학과실.
접수일(2014년 10월21일), 수정일(2014년 11월17일),
게재확정일(2014년 11월17일).

- 1)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格致餘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38, 39.
- 2) 김영목. 朱丹溪 相火論의 성리학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년. 제 20권 4호. p.791. “君火는 人君의 神明性을 상징하는 본체적 존재이고, 相火는 현실에서 發用하여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君火는 體이고 相火는 用이라는 체용원리적 해명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 3) 姚春鵬. 理學太極動靜之理與丹溪醫學. 中國哲學史. 2011年 第 2期. p.114. “君火와 相火의 관계는 생명의 동력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점은 君火는 本源 實質 原動力이고, 相火는 君火의 派生 表現이다. 이 둘은 源과 流, 體와 用, 隱과 顯, 一과 多의 관계이다.”
- 4) 斯軍民. 淺談朱丹溪相火論. 江西中醫藥. 2010年. 第 2期.

總 41卷 第 326期. p.16. “사람의 생명활동이 있게 되는 이유는 내재한 相火가 君火를 보좌하여 체내에서 氣血津液의 생성과 轉化를 추동하고, 相火가 君火에 대하여 支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 5) 戴琪, 朱明. 從朱丹溪君火與相火的關係論中醫心理調節機制.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年 3月. 第 25卷 第 2期. p.6. “만약 君火가 不明하여 相火를 억제하기 어렵다면 相火가 妄動하여 眞陰을 煎熬하여 精神이 다스려지지 않게 되어.....”
- 6) 唐 王冰 著. 宋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6年. p. 174.
- 7) 원종실. 元代 儒醫 朱丹溪 醫論에 나타난 理學思想淵源考- 『格致餘論』 「相火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2005년. 제 23輯. p.189. “相火가 인체에서 활동할 때, 본래 하늘에서 품수 받은 火의 원래 규율인 君火의 명령에서 벗어나 인체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것이 병리적 상태의 相火이며, 相火之變이요 張景岳이 말하는 邪火가 되는 것이다.”
- 8) 원종실. 元代 儒醫 朱丹溪 醫論에 나타난 理學思想淵源考- 『格致餘論』 「相火論」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2005년. 제 23輯. p.191. “그는 말하기를, ‘오직 火에는 두 가지 특성

한 君火-人火, 相火-天火의 관계가 기존의 君火 相火의 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다. 즉 宋代 理學⁹⁾의 관점에서 보면 天이 명령을 내리고 人이 명령을 받는 관계이므로, 天火인 相火가 명령을 내리고 人火인 君火가 명령을 받아야 하는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君火가 명령을 내리고 相火가 명령을 받는 관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게 朱丹溪 相火論에서 君火보다 相火를 더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한 논문도 있다.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비교 고찰」에서는 君火 相火의 의미를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人火인 君火보다 天火인 相火가 더 본원적이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¹⁰⁾. 이 논문에서는 특히 朱丹溪가 설정한 君火의 개념이 王冰의 주석을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고, 또 相火의 개념을 太極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이 최근 발간된 논문들에서 朱丹溪 相火論의 君火와 相火의 개념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주된 논점은 君火가 군주로서 명령을 내리고 相火가 신하로서 명령을 받아 실행한다는 기존 개념의 틀 속에서, 朱丹溪가 君火를 人火로, 相火를 天火로 규정하여 相火를 중시한 주장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朱丹溪의 주장을 기존의 것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宋代 理學의 天人관계 및 朱丹溪가 君火相火 개념을 정립할 때 인용했던 王冰의 주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君火와 相火의 개념과 관련된 조문을 분석함으로써, 朱丹溪 相火論에서의 君火와 相火의 개념이 기존의 君火와 相火에 대한 개념과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朱丹溪 相火論의 君火 相火의 개념에 대한 조문 검토

1) 『格致餘論』 「相火論」 12)

“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陽動而變，陰靜而合，而生水火木金土，各一其性。惟火有二，曰君火，人火也，曰相火，天火也。火內陰而外陽，主乎動者也。故凡動皆屬火。”

이 문장의 앞부분은 『太極圖說』의 문장을 인용하여¹³⁾, 太極에서 動靜의 운동을 통하여 陰陽과 五

이 있으니, 군화(君火=人火)라 부르고, 상화(相火=天火)라 부른다. (惟火有二，曰君火人火也，曰相火天火也.)라고 말하며, 火를 君火와 相火로 두 가지로 분별하였다. 여기에서 주단계가 말한 ‘君火人火’와 ‘相火天火’설은 학설이 분분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前者의 ‘君火人火’란 곧 본래 하늘의 생성기능인 君火를 주체로 설정하고, 이 君火가 인간에게 흡수되어 신체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여 人火라고 명칭한 것이고, 반면 후자의 ‘相火天火’는 바로 주체를 인간 신체 내에서 활동하는 생육기능인 火 즉 相火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인체 내에서 활동하는 火의 원래 근원이 바로 하늘로부터 흡수받은 것임을 강조하여 天火라고 명칭한 것이다.”

9) 여기서의 宋代 理學은 宋代 周濂溪(1017-1073)에서부터 비롯되어 그 제자인 程明道, 程伊川, 그리고 張橫渠에 의하여 계승되고, 朱子에 이르러 집대성된 학문계통을 의미한다.

10) 백유상.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비교 고찰. 대한한의학회원전학회지. 2006년. Vol. 19-3. p.386. “朱丹溪가 본 君火와 相火의 관계는 名과 實의 그것과 같아서, 形과 氣를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名 즉, 君火로 보았고, 내부에 숨겨진 본체와 같은 변화운동의 주체를 實 즉, 相火로 본 것이다.”

11) 백유상.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비교 고찰. 대한한의학회원전학회지. 2006년. Vol. 19-3. pp.382-383. “君火에 대하여 ‘以名而言，形氣相生，配於五行，故謂之君’이라 하였다. 여기서 名이라는 것은 「天元紀大論」의 ‘君火以明，相火以位’에 대한 王冰의 해석을 좇

은 것으로서, 王冰은 明을 名으로 보아 君火는 名으로써 하늘의 뜻을 받들고 相火는 자리를 지켜서 해야 할 命을 받는다고 하였다. …… 반면에 相火에 대하여는 ‘以位而言，生於虛無，守位稟命，因其動而可見，故謂之相’이라 하였는데, ‘守位稟命’은 王冰의 설명을 따른 것이고, ‘生於虛無’는 자신의 독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 朱丹溪가 말한 虛無라고 하는 陰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太極이 굳건히 恒動하는 陽의 세계로 다시 귀결된다.”

12)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格致餘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p.38-39.

13) 明 胡廣 等纂修. 苗楓林 主編. 性理大全(-).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年. pp.89-126. 『太極圖說』의 앞부분: “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動極而靜，靜而生陰，靜極復動。一動一靜，互爲其根；分陰分陽，兩儀入焉。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五氣順布，四時行焉。五行，一陰陽也，陰陽，一太極，太極本無極。五行之生也，各一其性。”

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陰陽과 五行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만물의 形氣가 구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五行에서 火는 君火와 相火의 두 개의 성질이 있어, 각각 人火 天火로 규정하고 있는데, 火를 天과 人으로 구분한 것은 宋代 理學의 天과 人에 대한 관점을 의학에 응용한 것이다.

宋代 理學에서는 세상 만물을 생성 운행하게 하는 근본 이치로서의 天理를 太極이라 명명하고, 太極은 어떠한 形體, 소리, 냄새 등 인체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나 흔적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無極), 세상 만물의 생성과 운행에 내재하여, 無爲而爲, 不期然而然的 작용을 하는데, 이를 『中庸』에서는 “天命之謂性”이라 표현하였다¹⁴⁾. ‘性’은 즉 天이 명령하여 인체에 내재한 天理 즉, 太極으로, 인체에서의 ‘性’이 곧 天에서의 ‘理’이므로, 天과 人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 宋代 理學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火를 君火와 相火로 구분하고, 君火를 人火로, 相火를 天火로 규정한 것은 君火는 인체 形氣內的 火이고, 相火는 天, 즉 太極과 관련이 있는 火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內陰而外陽’은 인체 形氣의 생명활동으로 나타나는 人火-君火를 外陽으로, 太極, 즉 天에서 動하는 天火-相火를 ‘內陰’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뒤의 문장에서 君火를 心(上)으로 보고, 相火를 肝腎의 下에 붙어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잘 드러난다.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於五行, 故謂之君.”

‘以名而言’은 『素問·天元紀大論』의 王冰 주석을 따른 것이다. 『素問·天元紀大論』의 원문은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 周天氣者, 六基爲一備, 終地紀者, 五歲爲一周, 君火以明, 相火以位”인데, 王冰의 주석은 “君火在相火之右, 但立名于君位, 不立歲氣, 故天之六氣, 不遇其氣, 以行君火之政. 守位而奉天之命, 以宣行火令爾. 以名奉天, 故曰君火以名, 守位稟命, 故云相火以位.(君火는 相火의 오른쪽에 있는데, 다만 君의 위치에서 이름만 내세우고, 歲氣를 주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天之六氣가 그 氣를 짝하여 君火의 政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相火는 자리를 지켜 天의 命을 받들어 火令을 펴서 行할 뿐이다. 이름만으로 天을 받들므로, 君火以名이라 한 것이고, 자리를 지켜 命을 받으므로 相火以位라고 한 것이다.)”이다.¹⁵⁾

王冰 주석의 내용은 天의 六氣가 地의 五位에 짝하는데, 地의 五位에는 君火가 이름만 있고, 歲氣를 세우지 못하며, 相火가 자리를 지켜 天의 命을 받아서 火令을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이다. 王冰이 ‘君火以明’의 ‘明’을 ‘名’으로 이해한 것은 君火가 歲氣를 세우지 못하고, 이름만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즉 君火는 실제적인 권한이 없고 이름만 내세운 것이며, 相火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름으로써 말하자면”은 이름을 내세운다는 뜻이고, 그 속뜻은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形氣相生, 配於五行”은 君火가 인체 形氣에 내재된 五行相生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므로, 인체 五行 중의 火에 배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君火는 인체 形氣의 五行相生의 법칙에 의하여 형성되어 五行의 ‘火’에 배속되는데, ‘君’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적인 생명활동을 주도하는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以位而言, 生於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

‘虛無’는 앞 문장의 ‘形氣’와 대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즉 君火가 인체 形氣의 五行相生에 의하여 생긴 火라면, 相火는 形而上의 의미가 있는 太極에서 나와 形而下의 인체와 연결되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虛無’가 비록 道家적인 색채가 짙은 용어이나, 朱丹溪가 相火를 天火로 규정하고 儒醫로서 理學에 밝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서의 虛無는 天, 즉 형이상학적인 太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守位’는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고, ‘聽命’은 天으로부터 命을 듣는다는 뜻이다.

聽命은 理學의 용어로 形氣之私가 없을 수 없는

14) 金赫濟 校閱. 中庸·中庸章句大全. 明文堂. 1978年. p.2. “天命之謂性.”

15) 唐 王冰 著. 宋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6年. p.174.

人心은 항상 위태롭기 때문에 항상 道心으로부터 명령을 들어 늘 道心이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相火가 太極과 인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接物應事하여 動할 때에는 항상 天의 명령을 들으며, 그 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相火는 天命을 듣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天火라 한 것이며, 그 자리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以位而言’이라 말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君相의 관계에서 君은 현실세계를 다스리는 데에 필요에 의하여 그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天命을 받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유능한 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朱丹溪는 이를 ‘以名而言’, ‘以位而言’이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內經』에서 “心, 君主之官, 神明出焉”, “君火以明, 相火以位”라 하여 心(君火)을 君主, 神明으로 비유하여 가장 존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見于天者, 出于龍雷, 則木之氣, 出于海, 則水之氣也. 具于人者, 寄于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 膽者, 肝之府, 膀胱者, 腎之府, 心胞絡者, 腎之配, 三焦以焦言, 而下焦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

이 문장에서는 相火가 下에 있는 肝腎의 陰분에 붙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相火가 위치한 곳이 아래 陰分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理學에서는 動도 중요하지만, 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太極圖說』에서는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立人極焉.”, “無欲故靜”이라 하였는데¹⁶⁾, 이는 ‘動而中節’하는 기전이 中正仁義를 통한 無欲, 즉 靜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朱丹溪는 ‘動’이 비록 ‘火’이지만, ‘靜’을 갖춘 ‘火’로서, 아래 陰분에 붙어 있는 陰中之火인 相火를 주목하고 강조한 것이다.

“肝腎之陰, 悉具相火, 人而同乎天也.”, “相火, 天人之所同.”

16) 明 胡廣 等纂修. 苗楓林 主編. 性理大全(-).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年. p.143. ‘無欲故靜’은 ‘主靜’ 아래의 自注.

이 문장에서는 相火가 天과 人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朱丹溪는 宋代 理學의 사상을 배경으로 인체에서 天으로부터 命을 받아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작용을 陰中之火인 相火가 한다고 본 것이고, 이 相火가 있음으로써 天과 人이 하나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周子曰: 神發知矣.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爲物所感, 不能不動. 謂之動者, 卽『內經』五火(肝心脾肺腎의 火)¹⁷⁾也. 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相煽, 則妄動矣.”

이 문장은 相火가 妄動하게 되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神에서 知가 나온 후에, 인체 形氣의 木火土金水 다섯 개의 성질이 物에 감촉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動을 표현한 것이 『內經』의 肝心脾肺腎의 五火이고, 이것이 서로 부채질하면 相火가 妄動하게 된다고 보았다.

理學에서는 사람이 形氣를 가지므로 私가 없을 수 없고 따라서 人欲이 있게 되는데, 이 人欲이 道心を 흐리는 것으로 보았다. 丹溪는 이 人欲을 肝心脾肺腎의 五火라고 보고, 이 五火가 相火妄動의 원인이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周子又曰: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 朱子曰: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 而人心每聽命焉.’ 此善處乎火者. 人心聽命乎道心, 而又能主之以靜, 彼五火之動皆中節, 相火惟有裨補造化, 以爲生生不息之運用耳.”

이 문장에서는 相火妄動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항상 聽命하여 靜을 위주로 하면 인체 五臟의 火가 ‘動皆中節’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中庸』의 朱子 序文을 부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¹⁸⁾

17) 唐 王冰 著. 宋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 天元紀大論.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6年. p.265. ‘一水不勝五火, 故目昏盲’: 王冰注: “皆, 視也. 一水, 目也, 五火, 謂五臟之厥陽也.”

18) 金赫濟 校閱. 中庸·中庸章句序. 明文堂. 1978年. pp.1-3. 中庸 서문의 관련 내용: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爲有人心 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爲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

理學에서는 사람이 비록 天으로부터 命을 받아 性을 지니지만, 形氣의 사사로움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形氣로부터 생기는 人欲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人心이 道心으로부터 命을 들어, 道心으로 하여금 항상 一身의 主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朱丹溪가 표현한 ‘聽命’은 ‘動而中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天으로부터 항상 命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天으로부터의 命은 구체적으로 ‘中正仁義’¹⁹⁾이고, ‘中正仁義’를 통하여 形氣로부터 나온 人欲을 ‘靜’하게 하여 ‘中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朱丹溪는 이러한 理學 사상의 영향을 받아, ‘聽命’하여 ‘靜’하는 것을 相火의 妄動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格致餘論』 「陽有餘陰不足論」²⁰⁾

“主閉藏者，腎也，司疏泄者，肝也。二臟皆有相火，而其系上屬於心。心，君火也，爲物所感則易動，心動則相火亦動，動則精自走，相火翕然而起，雖不交會，亦暗流而疏泄矣。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養心，其旨深矣！”

이 문장에서는 君火가 相火를 妄動하게 하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君火가 相火를 妄動하게 한다는 점은 君火가 인체의 形氣에서 나온 人欲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格致餘論』 「房中補益論」²¹⁾

“蓋相火藏於肝腎陰分，君火不妄動，相火惟有稟命

耳。然人莫不有是形，故雖上智不能無人心，亦莫不有是性，故雖下愚不能無道心。二者雜於方寸之間，而不知所以治之，則危者愈危，微者愈微，而天理之公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精則察夫二者之間而不雜也，一則守其本心之正而不離也。從事於斯，無少間斷，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而人心每聽命焉，則危者安，微者著，而動靜云爲自無過不及之差矣。”

- 19) 明 胡廣 等纂修. 苗楓林 主編. 性理大全(-).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年. p.144. 朱子: 其行之也, 中, 其處之也, 正, 其發之也, 仁, 其裁之也, 義.
- 20)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格致餘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10.
- 21)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格致餘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42.

守位而已，焉有燔灼之虐燄，飛走之狂勢也哉！”

이 문장에서도 君火가 相火를 妄動시킴을 설명하고 있다.

4) 『局方發揮』²²⁾

“相火之外，又有臟腑厥陽之火，五志之動，各有火起。相火者，此經所謂一水不勝二火之火，出於天造，厥陽者，此經所謂一水不勝五火之火，出於人欲。”

이 문장에서는 相火가 天造에서 나오고, 臟腑의 火, 즉 五火가 人欲에서 나왔음을 명시하고 있다.

‘一水不勝二火之火’는 『素問』 「逆調論」에서, 骨痺를 설명하면서 寒이甚하여 骨에 이르더라도 凍慄하지 않는 것은 人體에 水는 腎 하나이고, 火는 肝心の 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²³⁾에서 인용한 것이다. 즉 人體가 寒에 깊숙히 침범당하더라도 動慄하지 않게 하는 생리적인 火가 있음을 의미하고, 朱丹溪가 그 생리적인 火를 相火의 의미로 본 것이다.

5) 『金匱鉤玄』²⁴⁾

“火之爲病，……，龍火(天火)一妄行，元氣受傷，勢不兩立，偏勝則病移他經，經所謂²⁵⁾一水不勝二火之火，出於天造。”

“君相之外，又有厥陰臟腑之火，根於五志之內，六欲七情激之，其火隨起。大怒則火起於肝，醉飽則火起於胃，房勞則火起於腎，悲哀動中則火起於肺。心爲君主，自焚則私矣。丹溪又啓火出五臟主病，曰諸風掉眩，屬於肝火之動也，諸痛瘡瘍，屬於心火之用也，諸氣膈鬱，屬於肺火之升也，諸濕腫滿，屬於脾火之勝也，經所謂一水不勝五火之火，出自人爲。”

“又考內經病機十九條，內學屬火者五，諸熱昏暈，皆屬於火，……，而河間又廣其說，……。

曰：喘嘔吐酸，暴注下迫，轉筋，小便利濁，腹脹大，

- 22)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局方發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p.53-54.
- 23) 唐 王冰 著. 宋 高保衡 校. 黃帝內經素問. 天元紀大論.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6年. p.94.
- 24)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金匱鉤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171.
- 25) 元本에는 所以謂로 되어 있으나, 주 1)에 의하여 이를 삭제함.

鼓之有聲，癰疽瘍疹，瘤氣結核，吐下霍亂，督鬱腫脹，鼻塞衄衄，血溢血泄，淋閉，身熱惡寒，戰慄驚惑，悲笑譎妄，衄衄血汚之病，皆少陰君火之火，乃真心小腸之氣所爲也。

若昏癡，暴瘖，冒昧，躁擾狂越，罵詈驚駭，跗腫痠疼，氣逆上衝，禁慄如喪神守，嘔嘔，瘡瘍，喉症，耳鳴及聾，嘔湧溢食不下，目昧不明，暴注，瞶瘖，暴病暴死，此皆少陽相火之熱，乃心包絡三焦之氣所爲也。”

『金匱鉤玄』은 朱丹溪의 自撰이 아니고, 門人 혹은 私淑자가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이 문장에서는 臟腑之火로 인한 병에 六欲七情 및 병기19조에서 오장에 속한 것이 포함되고, 君火의 병은 心小腸의 병으로, 相火의 병은 心包絡三焦의 병으로 인식하여,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Ⅲ. 고찰

1) 宋代 理學과 君火 相火

宋代 理學에서는, 인체가 인식할 어떠한 형체, 색깔, 소리, 냄새 등이 없는 天의 理(太極)가 人에 부여된 것이 性이기 때문에 人과 天이 同하지만, 太極이 動靜의 과정을 거치면서 人의 形氣를 형성하게 되므로 人에는 形氣之私가 있게 되고, 여기에서 人欲이 생겨 ‘動而中節’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朱丹溪는 이러한 理學의 이론과, 王冰이 君火를 ‘名’으로, 相火를 ‘位’로 파악한 주석에 근거하여, 君火를 인체 形氣의 五行配屬에서 火에 속하는 人火로 규정하고, 形氣에서 人欲이 생기기 때문에 君火가 相火를 妄動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으며, 相火에 대하여는 太極으로부터 ‘中正仁義’를 聽命하여 ‘靜’하게 함으로써 君火의 人欲을 절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天火로 규정하였다. 특히 相火를, 인체 形氣의 五行에 배속되어 上에 있는 君火와 달리, 下에 위치한 肝腎에 붙어 있는 陰中之火로서 動靜을 겸비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相

火의 특성이 朱丹溪가 相火를 중시한 이유이다.

이와 같은 朱丹溪의 君火 相火에 대한 개념은 『內經』에서 “君火以明，相火以位”，“心，君主之官，神明出焉”이라 한 이후로 형성된, 君火는 主로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相火는 從으로서 君火의 명령을 받아 실제 정치를 행한다는 전통적인 개념과 상반된 것이다.

朱丹溪는 君火에 대하여, 形氣로부터 人欲이 나오므로 잘못된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相火에 대하여는 太極으로부터 ‘中正仁義’를 聽命하여 ‘靜’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君火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2) 기타 君火 相火에 대한 견해

君火 相火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러한 主從 隱顯의 관계로 보는 견해 외에, 君火를 神志를 주관하는 것으로, 相火를 하초 肝腎의 火로 生殖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²⁷⁾가 있는데, 이는 藏象의 관점에서 心과 腎의 상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는 있으나, 朱丹溪 相火論에서의 君火 相火의 핵심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병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相火論」의 “君火之氣，經以暑與濕言之，相火之氣，經以火言之，蓋表其暴旱酷烈，有甚於君火者也。”에 근거하여, “暑濕은 六淫으로 君火는 外感火熱에 속하고, 相火는 五性感物하여 動하기 때문에 證은 장부에 나타나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火熱이다.”라 하여, 丹溪가 君相의 구별을 外感 內生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 견해가 있다.²⁸⁾ 그러나 위 근거가 되는 조문은 君火와 相火의 불의 정도를 설명하는 말로 暑濕火가 모두 六氣이며, 그 의미는 『內經』에서 외부 六氣 중의 君火와 相火의 火의 정도가 相火가 君火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으므로, 인체 내부에서 相火가 妄動하였을 때의 火의 정도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朱

26)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金匱鉤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年 3月. p.103. 金匱鉤玄은 “朱丹溪門人私淑者整理五種”에 포함된다.

27) 戴琪, 朱明. 從朱丹溪君火與相火的關係論中醫心理調節機制.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年 3月. 第 25卷 第 2期. p.6. 김기욱, 박현국. 朱丹溪와 張景岳의 相火論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회. Vol. 19-4. pp.15-16.

28) 김기욱, 박현국. 朱丹溪와 張景岳의 相火論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회. Vol. 19-4. p.16.

丹溪가 相火論에서 언급한 君火 相火의 개념은 모두 외부 六氣가 아닌 인체 내부에 대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

3) 相火 君火 五火의 구분

朱丹溪는 火의 개념을 君火는 人火, 相火는 天火로 규정하여, 크게 天과 人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相火妄動의 원인으로 君火와 五火(臟腑之火)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인체 形氣의 火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君火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君火가 구체적으로 心을 지칭하므로, 다른 臟腑의 火도 표현할 필요가 생겨 五火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朱丹溪 相火論에서의 五火는 크게는 君火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후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金匱鉤玄』에서는 君火 相火 五火의 병증을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나열하고 있다.

4) 朱丹溪 相火개념의 문제점 및 후대에 미친 영향

이상에서 朱丹溪의 相火論에서 君火와 相火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朱丹溪 相火개념이 비록 宋代 理學으로부터 나왔지만, 宋代 理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性과 道의 의미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理學에서는 天이 명령하여 인체에 내재되어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말로 표현한 것을 性이라 하고, 이 性은 우리가 인식할 어떠한 흔적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작용을 통하여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性을 그대로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道라 한다.²⁹⁾

朱丹溪의 相火는 비록 動靜이 갖추어진 水中之火이지만 火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性이 될 수는 없는데, 朱丹溪는 ‘人而同乎天也.’, ‘天人之所同.’ ‘因其動而可見’이라 하여, 마치 性과 같은 개념인 듯 혼동을 주고 있으며, 相火의 작용으로 생리를 의미하는 ‘動而中節’과 병리를 의미하는 ‘妄動’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理學의 道에 해당하는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相火를 性의 개념과 구분시키고, 또 相火에 포함된 ‘動而中節’의 道心과 ‘妄動’의 人心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러한 점은 후대 明代 溫補學派에서, 太極의 개념을 인체에 적용하려는 命門學說의 발전과 相火의 의미에서 병리적 妄動의 개념을 분리하려는 연구방향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命門學說은 明代 溫補學派인 孫一奎가 제창한 것으로, 그는 太極의 본체로서 元氣를 주목하고, 元氣 발동처인 命門은 형질을 갖지 않지만, 신체에서의 부위는 兩腎사이이며, 그 성격은 ‘非水非火’라 하였고³⁰⁾, 趙獻可는 命門이 兩腎인 水의 사이에 있는 火라 하였으며³¹⁾, 張介賓은 命門이 兩腎의 가운데에 거처하면서, 水火를 겸하고, 性命의 본이 된다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이 明代에는 命門과 水火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命門은 宋代 理學의 太極 개념을 의학에 접목하려는 과정에서 설정된 용어이다. 그러므로 明代 命門學說은, 丹溪의 相火개념이 性과 道의 의미가 혼재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술논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孫一奎는 火에 대하여 다만 內외의 구분과 邪正의 구별이 있을 뿐이고, 天에 있어서나 人에 있어서나 모두 正火에 속하여 生化의 元氣를 주관하는 것이며, 邪火에 속하면 밖에서 온 것이나 안에서 생긴 것이나, 모두 元氣를 해치는 賊邪라 하여³³⁾, 丹溪가 相火妄動이라 한 병리적인 火를 邪火로 구분하고 있으며, 張介賓은 相火를 命門에 귀속시키고, 君相之火는 正氣이며, 邪念之火는 邪氣라고 하여, 相火의 개념을 正氣의 생리적 의미에 국한하였고³⁴⁾,

30)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16-118.

31)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21-123.

32)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25-127.

33)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16-118.

34) 程暢和, 朱向東. 相火理論源流考辨.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 Vol.20. No.3. p.13.

29) 金赫濟 校閱. 中庸·中庸章句大全. 明文堂. 1978年. p.2.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趙獻可도 相火를 인체 정상 생리기능활동의 동력으로 보아 張介賓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³⁵⁾. 이와 같이 明代 溫補學派에서는 相火의 개념에서 ‘妄動’의 병리적 의미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IV. 결 론

朱丹溪 相火論에서 君火와 相火 개념은, 宋代 理學의 ‘天’과 ‘人’의 개념과 王冰이 君火를 ‘名’, 相火를 ‘位’로 파악한 주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火를 太極에서 나온 相火와 인체 形氣의 五行에 배속되는 ‘君火’로 구분하고, 相火를 天火, 君火를 人火라 하였으며, 相火가 항상 天으로부터 聽命하여 ‘動而中節’의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인체 ‘形氣之私’에서 나온 君火의 人欲을 절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朱丹溪의 君火와 相火에 대한 개념은 그 이전 시기에 君火를 主로, 相火를 從으로 이해하던 君火 相火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朱丹溪의 相火개념은 宋代 理學의 ‘性’, ‘道’의 개념이 혼동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明代 溫補學派에서 命門학설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相火의 개념에서 ‘妄動’의 병리적 의미를 제거하려는 연구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References

1. ZH Zhu. Zhejiangsheng Zhongyiyuanjuiyuan Wenxianyanjuishi ed.. *Danxiyij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3. p.10, 38, 39, 42, 171, 103. pp.28-39, 53-54.
元 朱震亨 撰. 浙江省中醫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年. p.10, 38, 39, 42, 171, 103. pp.28-39, 53-54.
2. B Wang. *Huangdineijingsuwen*. Taiwan. Wen Kuang Publishing Co. 1977. p.94, 174, 265.

35) 程暢和, 朱向東. 相火理論源流考辨.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 Vol.20. No.3. p.13.

唐 王冰 著. 黃帝內經素問. 臺灣.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 66年. p.94, 174, 265.

3. HJ Kim. *Golden Mean*. Seoul. Myung Mun Dang. 1978. Preface: pp.1-3. Body: p.2. 金赫濟 校閱. 中庸. 서울. 明文堂. 1978年. 서문: pp.1-3. 본문: p.2.
4. G Hu and others. FL Miao. *A Full Compilation of The Theory of Mind and Principle Volume 1*. Jinan. Shandong Friendship Press. 1989. p.143, 144. pp.89-126. 明 胡廣 等纂修. 苗楓林 主編. 性理大全(一). 濟南. 山東友誼書社. 1989年. p.143, 144. pp.89-126.
5. DS Chen. *Famous Medical Theories of T.C.M*. Hunan. Hunan Science & Technology Press. 1989. pp.116-118. 陳大舜 主編. 中醫各家學說. 湖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9. pp.116-118.
6. YS Baik. A Study on Comparison Gunhwa-ron by Jinmutaek and Sangwa-ron by Judangy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3). p.386. pp.382-383. 백유상.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의 「相火論」의 비교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3). p.386. pp.382-383.
7. KW Kim, HG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nisterial-fire Theories of DX Zhu and JY Zhang.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4). pp.15-16. 김기욱, 박현국. 朱丹溪와 張景岳의 相火論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4). pp.15-16.
8. YM Kim. Neo-Confucian Study on the Ministerial Fire’s Theory of JuDanGe. *Korean J. Oriental & Pathology*. 2006. 20(4). p.791. 김영목. 朱丹溪 相火論의 성리학적 연구. 동의

- 생리병리학회지. 2006년. 제 20권 4호.
p.791.
9. JS Won. Study on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on Medical Theory of DX Zhu. The Journal of Asian Philosophy in Korea. 2005. Vol.23. p.189, 191.
원종실. 元代 儒醫 朱丹溪 醫論에 나타난 理學思想淵源考. 동양철학. 2005년. 제 23輯. p.189, 191.
10. CP Yao. Study on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on DX Zhu's Medical Theory. J of Chinese Philosophy History. 2011. 2. p.114.
姚春鵬. 理學太極動靜之理與丹溪醫學. 中國哲學史. 2011年 第 2期. p.114.
11. JM Si. Study on the Ministerial-fire Theory of DX Zhu. Jiangxi J.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 2. p.16.
斯軍民. 淺談朱丹溪相火論. 江西中醫藥. 2010年. 第 2期. 總 41卷 第 326期. p.16.
12. Q Dai, M Zhu. Study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T.C.M. to Utilize the relation of Monarch-fire and Ministerial-fire of DX Zhu's Theory. J. of Beijing U. of T.C.M. 2002. Vol. 25. No. 2. p.6.
戴琪, 朱明. 從朱丹溪君火與相火的關係論中醫心理調節機制.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02年 3月. 第 25卷 第 2期. p.6.
13. CH Cheng, XD Zhu. Study on the Origin and Flow of Ministerial-fire Theory. J. Gansu College of T.C.M. 2003. Vol.20. No.3. p.13.
程暢和, 朱向東. 相火理論源流考辨. 甘肅中醫學院學報. 2003. Vol.20. No.3. p.13.